

# 연준 댄친 중동發 불확실성 그림자...美금리인하 멀어져

### 인플레이션 상승·성장둔화 위험...불확실성에 통화정책 제한 월러도 동결로 전환...파월 "전쟁 경제영향 아무도 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결정 회의체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동시에 커짐에 따라 향후 경제 여건 변화 추이를 좀 더 기다리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FOMC 결정에 앞서 시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것을 기정사실로 예상해 왔다.

전쟁 개시 후 세계 원유 해상운송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7달러에 마감해 전쟁 시작 직전보다 47% 올랐다.

유가 상승은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물론 각종 석유화학 제품, 비료, 운송요금 상승으로 곧바로 반영되고 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근원지수 기준 1월 3.1%로, 연준의 물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한 달 전보다 0.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미국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임을 보여줬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0.7%(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작년 3분기 성장률(4.4%)에 비해서 크게 둔화한 상태다.

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9만2000명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2월(18만5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고용 약화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성장세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성장률 하락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물가가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

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 경제 환경은 통화정책 당국인 중앙은행을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고, 성장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탓이다.

중동 전쟁이 언제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연준의 정책 변화를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의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SEP)은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작년 12월 전망에서와 같은 3.4%로 유지했지만, 파월 의장은 이 같은 수치가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적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전망에 대해 "뭔가는 적어야 하나 위원들이 적어낸 것"이라며 "지속 기간이나 경제 영향의 규모에 관해 토론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상반기는 물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란 기대를 이미 크게 높인 상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6월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확률을 한 달 전 38%에서 이날 93%로 크게 높여 반영했다.

연합뉴스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도시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시설

연합뉴스

### 이란 보복에 카타르 가스시설 '광범위 피해' LNG 생산 거점 라스라판에 화재...카타르 "직접적 안보 위협"

이스라엘의 최대 가스전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주요 가스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을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란 외교관들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카타르 내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이란의 공격으로 북부 해안에 위치한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의 표적 공격 이후 현재 소방 당국이 라스라판 지역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이 동일한 방식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단행됐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북부 해안에 위치한 라스라판 가스 시설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된 후 "광범

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공격 직후 화재 진압을 위해 비상 대응팀이 즉시 투입됐으나, 이미 시설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에서 "라스라판을 겨냥한 이란의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공격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이후 이란의 군사 및 안보 당국과 그 직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카타르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